

자 기 소 개 서

목포해양대 항해학부 정준원

대학교 2학년, 학과 교수님께서 주관하신 LNG선 방선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선내의 긴장된 분위기, 눈에 보이지 않는 화물을 다루는 모습에 큰 매력을 느껴 선종을 결정하였습니다. 승선 실습을 대비해 화물 작업을 더 많이 이해하고 배우고자 4학년 전공과목 'LNG/LPG 운용'을 교수님께 부탁드려 미리 수강하였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학습했던 지식을 바탕으로 화물 작업에 더 빠르고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LNG선에서 실습 중, 기회를 받아 하역 작업의 Ballast p/p 기동 및 밸브 컨트롤, Cargo line의 밸브 컨트롤 및 V/R Compressor 컨트롤도 직접 해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사관으로서의 모습을 갖추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었고 국가 산업기지에서 에너지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능력을 LNGC 초임 사관으로 발휘하길 희망하며 동지해운에 지원합니다.

본교에서 해기사로서 자부심을 크게 느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교를 방문해 본교 홍보, 교내 실습선에서 원양항해 중 필리핀 고위 인사 방문으로 예도를 하였으며, 승선사관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승선사관부에서 25학년도 신입생 적응 교육, 승선실습설명회, LNGC 멘토링 프로그램을 주최하고 담당해 규율만을 강조하고 위압감을 느끼는 조직 이미지를 개선하고 후배들에게 좋은 문화를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승선실습 중, 전체 한국인 선원이었기에 앞으로 변화하는 외국 선원 증가로 혼승에서 의사소통역량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해 해외 어학연수를 통해 광 대학에서 영어 회화 실력을 키웠습니다. 외국 친구들과 소통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며 역량을 키웠고 향후 다국적 환경의 선내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정확히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승선실습 중, 처음 출항했을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선장님께서 담배를 한 대 태우시며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출항 관련 지시를 내리시고, 보고를 받으시는 모습이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선장님 자리에 서 있을 제 모습도 상상해보며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 미래의 시작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고, 기회로 말라카 해협의 원 패턴 구간 부근에서 수석 항해사의 지시로 직접 조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UKC, 같은 방향으로 항행하는 어선, 마주 오는 상선 등을 고려해 지시를 내릴 때 실력 있는 항해사를 넘어, 중대한 순간을 책임지는 선장이 되고자 하는 꿈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고 없이 가장 많은 액화가스를 운송한 최연소 선장'이라는 꿈을 향한 항해를 동지해운에서 함께 성장하며 펼치겠습니다.